

## 大學機能의 再照明



德成女大 學長 洪 雄 善

大學이 국가·사회 의 발전을 위해서 奇與하는 바가 至大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대학이 高等專門教育을 받은 人的 資源을 양성·배출하며, 학문 및 과학 기술 수준의 향상 등과 같은 知識資源을 축적시켜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우기 앞으로 社會는 그 構造가 복잡다기해지는 高度産業化로 移行되어 가기 때문에 국가·사회 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大學의 機能은 한층 더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학의 기능은 대학교육의 內實化를 통해서 발휘될 수 있는데 교육의 內實化를 기하는 것이 큰 壓力變數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대학교육의 內實을 기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변수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廣義의 입장에서 대학의 기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은 퍼킨스가 지적했듯이 教育 및 研究機能 이외에 社會奉仕의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 내지 기능이 대학에 구체적으로 內面化되어 조화롭게 具顯되고 있느냐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무릇 대학이 그 本質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발전을 加速化하기 위해서는 우선 3가지 機能에 대한 信賴回復이 급선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어려운 계반 與件하에서도 대학의 教育機能을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교육은 지나치게 知識과 技術의 습득만을 위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人格의 함양이라는 면에서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즉 대학에서의 교육은 지나치게 專攻知識의 연마에 편중되고 있기 때문에 責任意識과 能力을 겸비한 원만한 指導者的인 力量의 高揚에 모자람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敎養教育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점과 片面일률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전개에 기인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 기능은 새로운 관점에서 再照明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研究機能도 이미 오래전부터 教育機能과 함께 그 常爲性이 강조되어 오고 있으며, 제반 條件支援의 강화를 통하여 이러한 기능의 수행을 돕고 있으나 여전히 흠족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활동이 전개될 수 있고, 연구 결과의 妥當性 및 適用 可能性도 타진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기능은 교육 기능과 相補的 關係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이 따르고 있다. 연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사회 및 대학 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연구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적인 여건의 성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수 스스로 연구를 위한 분위기를 쇄신해 가는 노력을 傾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는 대학의 학문적인 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요청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社會奉仕의 기능이란 교육 및 연구 기능에 의한 결과를 직접 사회에 援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전문 기술자의 육성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을 뜻한다. 이러한 사회봉사의 기능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과거의 대학은 唯一한 理念, 또는 目的을 지닌 一元的인 제도로서 統一性, 原則性, 一貫性을 지닌 人爲的 共同體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을 지닌 대학은 변화속도가 빠르며 다양하게 발전해 가는 현대 사회에서 정체되고 폐쇄적이며 편협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현대의 대학은 점차 多元的인 성격을 지닌 대학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대의 대학은 學問爲主인 '상아탑'식의 孤高主義로부터의 탈피가 요구되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 변화의 動因으로서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칼·야스퍼스는 사회는 대학을 지원하여 대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知的인 風土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 국가·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대학과 사회의 유대 關係를 설명하였다. 이는 결국 대학이 발전하면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며, 대학의 社會奉仕 기능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에서 產學協同 프로그램이 확충·강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平生教育 및 社會教育의 기능이 재정립·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비록 새롭지는 않지만 대학의 기능을 再照明해 보았다. 결국 대학의 기능은 전통적인 教育, 研究 機能 이외에 社會奉仕의 기능이 포함되어 조화될 이룰 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은 이 세 가지 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데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많은 대학 및 대학인이 대학의 기능으로 전통적으로 교수되어 온 教育·研究 機能을 지적하는 데는 論議의 여지가 없으나 社會奉仕의 機能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학인의 社會參與問題와 결부시켜 다소의 論難이 일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이란 이러한 논란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세 기능이 원만한 조화를 이룰 때 대학의 발전도 기약될 수 있으리라 본다. \*